

Global Green  
Environment Company

# KC NEWSLETTER

Vol. 61



## IN THIS ISSUE:

ES Division  
TWO 2010

---

ES Division  
ESCO 사업

---

LCIN  
Technical Director

---



TWO 2010

TOP WE ONE

TOP로 하나되어 TOP이 되자!

2010

매출 20% 향상, 원가 10% 절감



KC그린홀딩스에서 폐기물 소각산업을 영위하는 3개 회사가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젝트 TWO 2010의 진행상황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 진행현황 및 주요활동

지난 8월 7일 SC보고에서 설정된 목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TS(Target Setting)단계가 종료되고, 현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만들어 내는 PS(Problem Solving)단계가 진행 중이다. 기존가설, 아이디어 워크숍, 제안제도를 통해 수집된 개선 아이디어는 각 회사별로 검증과정을 거쳐 임원과 TF인원으로 구성된 승인위원회에서 실행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제안은 현재까지 약 150건이며 4차 승인위원회를 통해 31건의 제안이 승인되어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제안제도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CFT (Cross-functional Team)는 9개의 테마를 (생산성 향상, 구매비 개선, 전력비 개선, 안전환경 통합운영, 수선비 개선, 차량유지관리비 개선, 폐기물처리비용 개선, 폐수/폐유개선, 약품류 사용량 개선) 대상으로 개선방향과 비용절감 방안을 집중 탐구하고 있다. TWO 2010 TF원들이 각각의 테마에 맞는 매트릭스 조직을 형성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별 추진경과 중간보고를 지난 9



함께하자! TWO  
달성하자! 2010



## Top We One 2010

TWO 'TOP We One' TOP로 하나되어 TOP이 되자!  
2010 매출 20% 향상, 원가 10% 절감

월4일 실시하였다. TWO 2010 TF와 맥큐스가 참여한 CFT 중간보고는 각 테마별 팀장이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토론을 통해 내용이 한층 더 발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면서 이 결과가 곧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과 파이팅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 야간산행

빠듯한 일정 속에서 끊임없는 분석과 토론으로 자칫 무거워 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유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TWO 2010 TF는 야간 산행을 실시하였다. 지난 9월 4일 CFT 보고가 있는 후, TF원과 KC에코에너지 직원을 포함한 40여명은 전주 기린봉에 오르며 팀별 미션을 수행하며 팀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면서 정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땀을 흘리는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TWO 2010 TF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하나됨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향후 계획

10월 2일 최종보고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과제들을 설정한 뒤 '실행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맥큐스는 최종보고까지 각 회사에 상주하고 이후, 단위 기간별로 각 회사를 방문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01 아이디어 내용 원가 절감, 품질향상, 생산성증대, 수익창출, 기타 수익성 개선  
02 아이디어 유효기간 2014년 7월 10일 ~ 9월 30일  
04 포상내용

제안포상			
아이디어 제출 및 아이디어 최고 제안자 대상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기준
제출	3천원/건	제출자 전원	현금
1등(1명)	20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2등(1명)	10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3등(1명)	5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 아이디어 제출은 필수, 제안 제출은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포상

- 03 참가대상 KC 환경서비스, KC 한미산업  
KC 에코에너지 모든 임직원

실행포상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 대상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기준
추가 베스트	10만원	승인위원회	현금, 상장
최우수(1명)	50만원	유형효과(50%)	현금, 상장
우수(2명)	30만원	(제안적 효과)	현금, 상장
장려(3명)	10만원	무형효과(50%)	현금, 상장
		(창의성, 확산 가능성)	
선택 아이디어 (GO) 제출자	1만원/건	실행 결정 Idea	현금

• 주간 베스트 및 선택 아이디어 제출자 필수,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는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포상

실행포상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기준	포상방법
아이디어 제안자, 실행자	유형효과외 1% (1년)	제안자 40%, 실행자가 60% 지급	현금

• 1년 후, 포상



## KC글라스 지속가능경영 교육 실시

KC글라스는 지난 8월 18일 당사 강당에서 3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의 목적은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사항들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숙지하고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 과정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커져 사회공헌, 환경보호 등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시행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의 내용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경우 해외 은행에서 대규모 차관을 필요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해외 은행에서 요구했

던 것이 다른 아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였다고 한다. 해당 은행은 현대자동차가 해왔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조 단위의 차관을 해주었다고 한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보고서이지만 홍보 책자(brochure)가 아니기 때문에 미사여구 등을 넣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 작성보다 탄탄한 지속가능 경영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KC글라스 임직원 일동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은 결과 보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 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에스코(ESCO) 사업 시작

지난 8월 18일 에너지 관리공단의 ESCO 자금 추천서 발급으로 KC코트렐의 ESCO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이란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은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고, 에너지절약 금액을 통해 투자비를 상환하고 목표절감액 이상의 수익은 배분하는 사업방식이다.

KC코트렐의 첫 번째 ESCO사업은 관계사인 KC에코에너지에 신설되는 SRF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스팀 중에서 탈기기로 공급되는 증기의 감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320kW급을 폐열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ESCO 사업을 통해 KC에코에너지에 설치되는 폐열발전소는 320kW급으로 24시간 330일 가동되어 연간 약 2백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471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폐열발전을 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자(KC에코에너지)는 폐열발전을 통하여 부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ESCO 사업자(KC코트렐)은 이러한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여 유사한 폐기물소각로 등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여, 그간 방치되어 오던 폐기물 소각 보일러의 저압, 저유량 스팀의 재활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폐열발전을 이용한 ESCO 사업으로 효율적 에너지 재이용사업을 창출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KC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PT Krakatau Engineering, KC코트렐 방문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 산하 건설사인 “PT Krakatau Engineering(이하 “PT.KE)”의 대표이사인 Bambang 사장과 Anwar Ali 부사장이 방한하여 본사를 방문하였다. PT.KE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7:3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 법인 “PT.KP”이 투자한 찰레곤 일관제철소의 건립을 주도한 종합건설사로 다음 날 내정되어 있는 포스코건설과의 업무 협의에 앞서 당사를 방문하여 그 동안 제철소 건설을 위해 보여준 당사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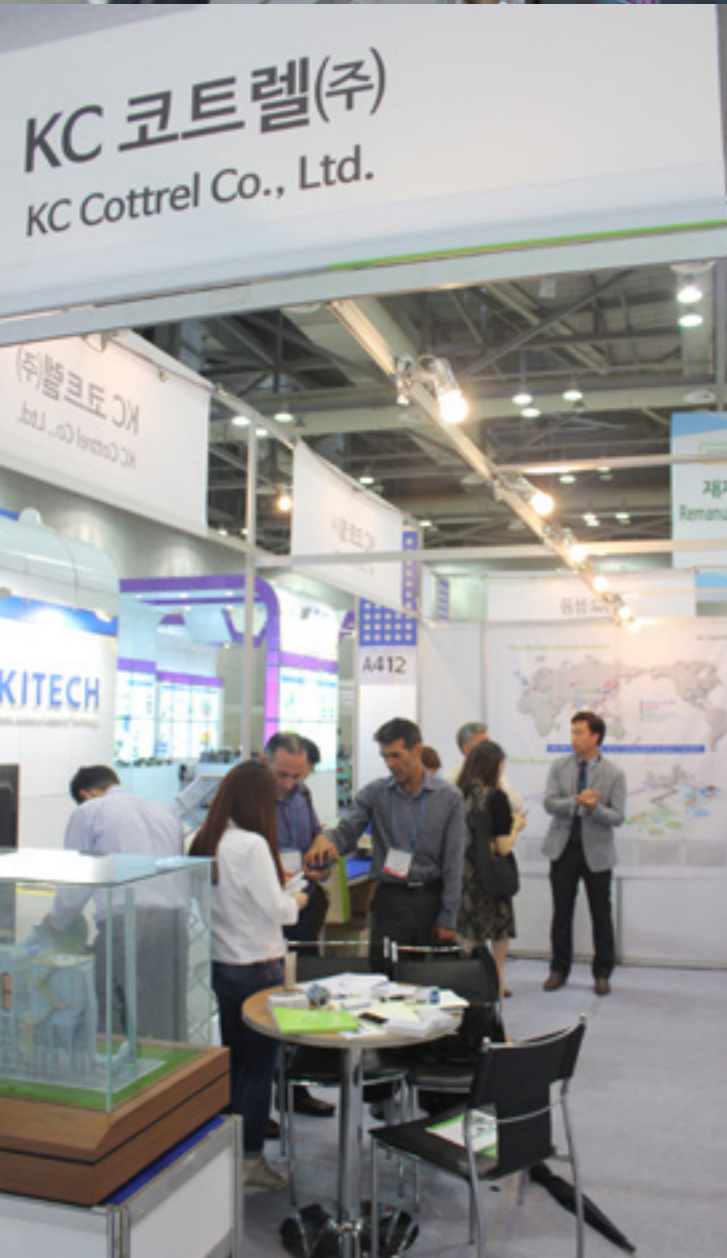
찰레곤 제철소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서북쪽 방향 100KM에 위치한 일관제철소로 작년 말 종합 준공을 하여 금년부터 상업 가동이 되고 있다. 포스코가 해외에 처음으로 투자한 동남아 최초의 찰레곤 제철소는 조강생산량 300만톤/년 규모로 향후 장기적인 철강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통

해 총 600만톤/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사는 2011년 PT.KE와 포스코건설을 통해 고로, 제강, 원료, 소결 공장에 전기집진기와 여과집진기 총 9기 약 300억원 규모의 환경설비를 공급하였으며 이 중에서 PT.KE에서 직접 발주한 고로와 제강 환경설비 프로젝트는 현지 시공을 포함하여 일괄로 수행을 하였다.

금번 PT.KE 사장단은 이태영 사장 이하 신영만 부사장, 서동영 부사장과 실무진이 접견을 하였고 당사의 소개와 더불어 아직 남아 있는 행정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또한, 철강사업 뿐만 아니라 발전소, 미니EPC등 개발과 투자가 무한한 인도네시아 현지 미래 사업에 대하여 협업의 의지와 뜻을 함께 하는 자리였다.



## KC코트렐 Re-Tech 2014, ENTECH 2014를 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체하는 제7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은 재제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전시하고 홍보하는 자리이다.

재제조(Remufacturing)산업은 자원절감·환경보전·고용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순환 방법 중 하나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국제 재제조 콘퍼런스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규모가 큰 미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협회(APRA) 회장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재제조 전문가를 초청해 시장현황 및 전망,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전파함으로써 국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하였다. 이번에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재제조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를 대거 초청해 콘퍼런스를 진행하였고, 특히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부품재제조 및 스포츠 부문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주관하는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KC코트렐 기술연구소는 이번 전시회 목적에 맞게 KCES에서 사업화중인 SCR촉매 재제조 사업에 대한 홍보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으로 진행 중인 사용 후 중질유 탈황촉매 재제조 개발에 대한 홍보 및 전시와 앞으로 사업화연구개발을 진행할 자동차 촉매 재제조에 대하여 홍보 및 전시하였다. 이 전시회는 앞으로 사업화에 대하여 정유 및 화학회사 및 자동차 촉매 재제조 회사에 널리 홍보할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재제조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료된다.

지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BEXCO에서 2014 국제환경 에너지산업전(ENTECH2014)이 열렸다. 올해 8회째 맞는 행사이며 코트렐은 2번째 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당사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시스템, 독립분산전원시스템),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등 신규 아이템들을 전시하였다.

이번 ENTECH 2014는 총 10개국 281개사(국내 256, 해외 25) 680부스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전력·발전, 가스, 수질, 소음,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부문 등 환경·에너지산업분야의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다양한 아이템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발전사들과 국내 전력산업 성장에 기여해온 협력기업들이 참여하였으며, 당사는 6개발전사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부스를 세우게 되었다.

해외바이어 방문객 수가 특히 많았으며, 중남미, 터키 등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이 당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달 인도법인에 CEO로 취임한 Mr. Pradip Mukherjee에 이어 LCIN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지난 8월 Technical Director로 영입된 Mr. Probir Maiti는 29년 동안 ESP와 Bag house를 주로 한 집진기술 분야에 종사해왔고, 그간 ESP와 Bag house 성능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앞으로 LCIN의 Technical Director로써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고 인도시장에 세분화된 전기집진 사업을 도입 및 실행하며, 내부 기술 교육 및 기술정보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KC와 LCIN의 기술력에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KC의 가족이 된 Mr. Probir Maiti를 환영하며, 새로운 LCIN가족들을 주축으로 더욱 더 번창하는 LCIN이 되기를 기원한다.



KC코트렐은 9월의 첫번째 월요일을 맞이하여 “KC, 우리는 누구인가?” 를 주제로 서동영 총괄 부사장 주관의 FM-M(First Monday Morning)을 가졌다. 우리는 KC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환경플랜트 E&C 회사이며, 자국내 환경플랜트 기술력을 함양하고,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창립 이래 때로는 개척자(Pioneer)로서 때로는 추격자(Follower)로서 전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 해왔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서 부사장은 시장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최고의 기술과 품질, 그리고 원가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 우뚝 서도록 개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배양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01 아메디에 내용 원가 절감, 품질향상, 생산성증대, 수익창출, 기타 수익성 개선  
02 아메디에 종료기간 2014년 7월 10일 ~ 9월 30일 03 참가대상 KC 환경서비스, KC 한미산업  
04 포상내용 KC 에코에너지 모든 임직원

목적대상	토출공백	토출기준	토출방법
토출대상	820명(거주자)	거주자 3세대	현관
1층(1명)	20만원	제안서 제출 전후	현관 상향
2층(1명)	10만원	제안서 제출 전후	현관 상향
3층(1명)	5만원	제안서 제출 전후	현관 상향

\* 아이디어 제출은 해주, 제언 제출은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포함

\* 아이디어 제출은 매주, 제언 제출은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포함

주제	토론대상	토론개원	토론기준	토론방법
주거복지	10만원	승인위원회	한정 상한	한정 상한
취업수당(1명)	50만원	무형효율(50%)	한정 상한	한정 상한
복합(2명)	30만원	(재무적 효과)	한정 상한	한정 상한
장려(3명)	10만원	무형효율(50%)	한정 상한	한정 상한
		(장려성, 확산 가능성)		
주택 임대료 (GDI) 제정	1만원/건	실용 결정 idea	한정	한정

\* 중간 베스트 및 재택 아이디어 제출자 때루,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는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시상

보상대상	보상금액	보상기준	보상방법
아이디어	무형효과의 1%	제안수 40%	현금
제안자, 실행자	(1년)	실행자가 60% 지급	

•1년 零, 포행

